



2005년 조계종 신년하례법회가 1월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대재앙은 삼독심결과...참회를”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신년하례서 교시

7일 해인사에서

2005년 조계종 신년하례법회가 1월 7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법회에서 종정 법전 스님은 교시를 통해 “모든 불자들은 동체대자비의 마음으로 이 아픔을 극복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전 스님은 또 “이번 대재앙은 불, 물, 바람으로 인한 것이니 중생들의 삼독심인 탐욕, 미워하는 마음, 어리석음의 업보이기도 하다”며 “모든 사람들이 참회하고 마음을 맑게 닦는 계기를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주요 소인자 스님

들과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포함해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본사주지회의 “동남아 지원”

한편 신년하례법회에 이어 열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는 △200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의 건 △동남아시아 지원해일 피해민 지원의 건 △사찰문화재 일제 조사 안내의 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지원해일 피해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사찰문화재 일제 조사에도 협조키로 결의했다.

해인사=남동우 기자

템플스테이 활성화 세미나 13일 불교문화사업단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교)이 2002년 월드컵 이후 3년 간의 사업을 중단하고,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1월 1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연다.

이날 기조발제는 현교 스님이 맡아 ‘템플스테이(사찰문화체험) 사업의 배경과 방향’을 고찰한다. 발제는 스탬플스테이가 불교문화 대중화에 미치는 영향과 종단 시스템 구축방안-주경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여가문화 변화와 템플스테이 역할과 과제-강신경 수석연구원(삼경경제연구소) △한국 대표 전통문화 체험 관광자원으로서의 템플스테이 사업 전망과 과제-나윤종 교수(동명정보대학 교관광경영학과) 등이다.

강지연 기자

‘사회과학분야의...’

15일 제4차 예코포럼

동국대 예코포럼이 1월 15일 오후 2시 다학문 세미나실에서 ‘사회과학분야의 상호의존성(사회과학분야)’을 주제로 제4차 정례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의 좌장은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주제 발표에는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나선다. ‘사회과학에서 시스템과 상호의존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덕진 교수는 발제문에서 주제(개인들의 구조적 상호의존성 사회과학적 분석기법을)를 통해 설명했다. 장교수는 “행위자가 구조 속에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과 적극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구조 속 다른 행위자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들의 행위나 선택은 시스템 외부가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며, 이들의 운명도 철저히 상호의존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해 불교의 연기론적 인식체계를 사회과학적 상호의존성으로 해석했다. 조용수 기자

창건주 승계 놓고 서울 보광사 ‘폭력’ 난무

성비스님 “법인 임명” 현중스님 “권한 위임” 5일간 4차례 공방...불교계 “강력징계를”

재단법인 선학원 사찰인 서울 보광사에서 창건주 승계 문제를 둘러싸고 법인으로부터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성비 스님(문도회) 측과 정일 스님으로부터 창건주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현중 스님 측 간에 사찰을 서로 뺏고 빼앗기는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선학원 이사장이자 보광사 창건주인 정일 스님이 임명된 뒤 재단으로부터 보광사 새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받은 성비 스님 측에서 지난 12월31일 새벽 용역회사 직원과 정체를

명의 청년 200여명을 동원해 보광사를 점거하면서 시작됐다.

다음날 새벽에는 현중 스님 측이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다시 보광사를 빼앗는 등 1월4일까지 5일 동안 네 차례나 사찰을 뺏고 빼앗기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와불사를 위해 모아놓은 기와장이 무기로 사용됐으며, 야구방망이와 삼 등을 휘두르며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자가 발생해 119 구급차량이 출동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5일 부산 보광사



양측의 사찰 무력점거 와중에 무참히 깨어져버린 서울 보광사의 기와들.

에서도 새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받은 황백 스님측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사찰을 점유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중앙신도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 6개 단체들은 1월 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질 뺏기 폭력이 되풀이되는 것은 자질이 부족한 출가자들이 급진적 이익의 충족이라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데서 기인한다”며 “다시는 폭력이 불교계

에 발발할 수 없도록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종헌 중법에 의한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을 조계종에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 조사국장 해일 스님도 “보광사가 선학원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겠지만 관여된 스님들이 조계종 소속인 만큼, 폭력이 발생하고 기물이 파손됐기 때문에 승승실수 혐의에 대해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왜 이런일이...

창건주가 권한 승계 분명히 정리안해 발단

서울 보광사와 부산 보광사 사태는 창건주이자 전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이 상호 몇 명을 선택해 창건주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정일 스님은 선학원 소속 서울 보광사, 부산 보광사, 청주 충북교 문화회관, 산청 정각사, 부산 영수선원과 재단법인 심우회 소속 추풍령 보광사, 동두천 선문사 등을 창건했다. 현중 스님측은 “정일 스님이 지난해 9월 원적에 들기 전 서울 보광사, 부산 보광사 주자장과 유지원, 청주 충북불교문화회관은 현중 스님, 부산 보광사는 황윤 스님, 산청 정각사는 황명 스님 등에게 창건주 권한을 위임했

고, 이 같은 의사를 2004년 1월 이사회에 전달했다”며 유언장과 육성녹음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그러나 성비 스님측은 “유언장의 경우 위임자와 위임받는 자, 선학원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 또는 임원이 임의하고 공증서에 증인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중 스님 단독으로 작성했다”며 사문서 위조의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육성녹음도 “현중 스님이 은사 스님을 협박해 녹음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단 측도 “총무이사가 수차례 임의하여 위임자인 정일 스님의 사를 확인하려 했지만 현중 스님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며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보광사, 부산 보광사, 충북불교문화회관을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재단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문도회 중심으로 문제를 수습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중 스님은 “지난 해 1월 경 총무이사가 창건주 위임과 관련해 면담을 원하거나 통화를 원할 경우 가까이 응하겠다고 했으나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며 반박했다. 현중 스님은 또 “은사 스님이 원적한 후 일부 이사와 사행들의 야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일부 이사진을 지목했다.

선학원 정관에는 ‘창건주 권한 승계는 사자상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하위법인 분원관리규정에는 ‘창건주 권한 승계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재단은 현재 창건주 승계 문제를 문도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현중 스님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재산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재단 감사인에 감사원 신청해 왔으며, 성비 스님측은 현중 스님 측을 ‘퇴거불응 및 업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현대불교 2004년 합본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4년 합본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초청 대법회’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VCD를 증정합니다.

◆ 구입 안내

- ◆ 내용 : 2004년도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454~506호)
- ◆ 크기 : 신문대판 원형(40cm~55cm)
- ◆ 방법 : 전화 신청 / 입금확인 후 택배 발송
- ◆ 가격 : 80,000원 (발송비 무료)
- ◆ 입금구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주문 및 문의 전화 : (02)737-0090(직통) /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보광사 사중 정상화에 대한 말씀

우선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새해 벽두부터 불자와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산승은 보광사를 창건하신 남산당 정일선사의 상좌로서, 문도회 전체회의의 결의에 따라 지난 2004년 12월 18일 재단법인 선학원에 의해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받은 성비라고 합니다. 산승은 현재 보광사의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재산관리인으로서 조속히 사중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보광사는 큰스님께서 평생 수행정진을 통해 이룩하신 청정도량으로서, 재단법인 선학원에 여법하게 등록하여 불법홍포의 본산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으며, 60여명 문도들이 축발한 문도들의 명예로운 본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큰스님께서 원적에 드신 후 시자였던 현중스님이 전체 문도들의 공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이곳 우이동 보광사를 비롯해 부산 보광사와 충주 충북불교문화회관 등 큰스님께서 평생 수행정진을 통해 일구신 삼보정재들을 사유화 하려는 음모를 꾸며 왔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저희 문도 일동은 현중스님의 작태를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전체 문도회의의 결의를 거쳐 산승을 보광사 정상화를 위한 재산 관리인으로 추천하기에 이른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광사를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현중스님을 산문출송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불자와 국민 여러분에게 승가답지 못한 모습이 비쳐졌으나, 지난해 12월 24일 부산 보광사를 정상화시키는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우이동 보광사도 적법하게 안정을 되찾았음을 보광사를 이기고 염려하는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이번 폭력사태를 일으킨 현중스님과 그 일당들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 ‘사찰 출입 금지가처분 신청’ 등 다시는 이 보광사 산문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구해 놓았으며, 치안당국에 대해서도 더 이상 폭력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광사 신도 여러분께서는 큰스님의 높으신 덕화가 깃들여 있는 이 도량을 수호하고, 큰스님의 유덕을 길이 빛내고자 하는 저희 문도들의 간곡한 충정을 심분 이해하시어, 일체의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전과 다름없이 수행활동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7일

보광사 재산관리인 성비
남산당 정일선사 문도회 일동 합장